

정의선의 SUV 승부수 통했다... 글로벌 판매 고속질주

기아자동차

인도공장서 '셀토스' 양산 본격화
현지 누적 사전계약만 2만대 넘어
생소한 신규브랜드 약점극복 위해
160개 도시 265개 서비스망 구축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이 공들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글로벌 판매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아차 사장을 역임하며 '정의선 차'라고 불리는 모하비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제2의 모하비'로 불리는 북미 전용 모델 대형 SUV 텔루라이드가 북미시장에 출시하고 흥행몰이 중이다. 텔루라이드는 미국에서 매달 5000~6000대 가량 팔리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막내 셀토스가 이어간다.



기아차 셀토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인도공장에서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셀토스의 생산을 시작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아차 인도 시장 개척의 선봉에 선 셀토스는 현지 누적 사전계약 2만2073대를 기록하며 판매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기아차는 이날 인도공장 현장에서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 관계자, 신봉길 주인도대사, 심국현 기아차 인도법인

장, 기자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셀토스 양산 기념식'을 가졌다. 기아차 인도공장에서 생산, 판매되는 첫 번째 모델인 셀토스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SUV 시장 공략을 위해 기아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소형 SUV 전략 차종이다.

기아차는 셀토스의 인도 현지 생산, 판매에 앞서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셀토스 개발에 전력을 다해 왔다.

약 13개월에 걸친 면밀한 인도 현지 시장 분석을 토대로 인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디자인, 특화 사양 등을 반영하는 철저한 현지화 작업을 거쳤다.

이달 22일 인도 시장에 정식 론칭 예정인 셀토스는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판매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현지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신규 브랜드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지난 달 16일부터 시작된 사전계약 첫날 6046대가 계약된 데 이어, 지난 6일 기준으로 누적 2만2073대가 계약됐다.

기아차는 인도 시장 진출이 처음인 만큼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판매 및 서비스 거점 확보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셀토스 론칭 시점까지 인도 전역 160개 도시에 265개의 판매 및 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셀토스를 인도 내수 시장에서 연간 6만대 가량 판매하는 등 향후 3년 내에 인도 시장 톱티어(일류) 브랜드에 올라선다는 방침이다.

셀토스 생산과 동시에 본격 가동에

돌입한 기아차 인도공장은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17년 10월 착공, 216만㎡(65.5만평)의 부지에 연산 30만대 규모로 건설됐다.

올해 5만2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3년 이내에 30만대 완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셀토스와 함께 생산할 신규 차종 투입도 검토 중이다.

특히 기아차 인도공장은 차세대 성장 시장인 인도는 물론 신형 자동차 시장의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도 활용된다. 기아차는 인도공장 생산 물량의 일부를 아중동, 아태, 중남미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셀토스에 대한 인도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기아차 인도공장이 성공적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며 "기아차의 글로벌 성장사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인도시장 성공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가 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개발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호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장, 오창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부원장, 이철배 LG전자 뉴비즈니스센터장, 김수영 LG전자 뉴비즈니스센터 웰니스Task리더(왼쪽부터).

/LG전자

LG전자-분당서울대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개발

LG전자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고객들의 스마트한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협력한다.

양사는 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개발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LG전자 이철배 뉴비즈니스센터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오창완 연구부원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디지털 헬스케어란 기존 의료기술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새로운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전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고객들이 가전제품을 통해 복약 상태, 혈당·혈압 수치, 병원 진료기록 등 건강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 실적 선순환... 매출 24%·영업익 47% ↑

(전년 동기 대비)

카카오톡 기반 수익 확대
신규사업 매출 증가 가속
플랫폼·콘텐츠사업 순항

카카오는 K-IFRS(한국국제회계기준) 기준 올해 2분기 연결 매출 7330억원, 영업이익 40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톡 기반의 수익 확대, 콘텐츠 부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연결 매출은 전분기 대비 4%,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6%,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6%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중심의 수익 확대뿐 아니라 그동안 투자해왔던 신규 사업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비용이 효율화되면서 카카오의 전 사업 구조가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4%,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3268

kakao

억원을 기록했다. 톱비즈 매출은 카카오톱 내 광고 인벤토리 확대, 메시지 광고의 지속적 성장으로 전 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389억원을 기록했다. 포털비즈 매출은 모바일 광고 매출 호조와 신규 광고 플랫폼인 모먼트 적용에 따라 전분기 대비 8%,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한 1369억원이다. 신사업 매출은 카카오톱 대리 매출 증가와 웨이브의 온오프라인 결제 매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하며 510억원을 달성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4062억원이며 전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게임 콘텐츠 매출은 전분기 대비 5% 증가했으나, 지난해 2분기 PC방 상용화를 시작한 배틀그라운드 매출의 기여효과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984억원을 기록했다. 뮤직 콘텐츠 매출은 전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료 콘텐츠 매출은 카카오페이지와 글로벌 사업의 거래액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한 815억원이다. IP 비즈니스·기타 매출은 메가아티스트의 음반 출시 감소 영향에 따라 전분기 대비 6% 감소했으나, 카카오톱의 온라인 매출 성장과 카카옴의 신규 자회사 연결 편입 효과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817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핵심 성장동력인 톱비즈 부문의 성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2분기 클로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톱보드는 3분기 중 오픈 베타로 전환하며 참여 파트너를 확대할 예정이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멜론, 카카오페이지 등 성장을 견인하는 플랫폼들의 사업 강화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위니아딤채 상반기 김치냉장고 10만대 판매

10여년 만에 최고 기록

딤채가 10여년 만에 상반기 10만대 이상 판매 실적을 되찾았다.

위니아딤채는 올 들어 6월까지 딤채 판매량이 10만6000대로 최근 10년간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 늘어난 실적이다. 상반기 내내 전년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다. 1월에 16%, 2월 13% 등 두자리수에 이어 비수기인 6월에도 소폭이나마 성장했다.

딤채는 1995년 처음 출시된 후 김치냉장고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제품이다. 2000년 중반부터 2008년까지 10만대 이상을 기록하다가 경쟁 제품에 일부 점유율을 빼앗겼지만, 10년여만에 다시 왕좌를 되찾았다.

위니아딤채는 김치냉장고가 김치 저장으로만 쓰이지 않게 됐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김치냉장고는 공기를 순환하는 방식이어서 바나나와 감자 등 식품을 더 잘 저장하고, 고기의 경우 숙성까지 해준다.

/김재용 기자 juk@

“추석 귀향길 메뉴 타고 가세요”

현대차, 10개 모델 시승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신형 쏘나타, 베뉴 등 10개 모델 300대를 지원하는 '추석 맞이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승 이벤트 대상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응모 고객 중 300명을 추첨해 다음달 5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추석 맞이 시승 이벤트.

당첨된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6박7일 간 차량을 시승할 수 있다.

특히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혼라이프 SUV 베뉴'도 시승차 리스트에 포함

됐다.

이와 함께 이번 명절 귀성차량으로 지원되는 10개 차종은 아반떼, i30, 벨로스터, 쏘나타,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베뉴, 코나, 투싼, 싼타페 등이다.

/양성운 기자